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1호 [루게 제24514호] 주제103(2014)년 4월 11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4월 10일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앞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양형섭동지, 최영림동지, 리용무동지, 박도춘동지, 강석주동지, 김원홍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자기들에게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안겨주시고 오늘은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굶주리는 걱정을 누르지 못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참가자들은 비범한 사상 리론적예지와 특출한 정치실력, 만사람을 매혹시키는 고매한 인품을 지니시고 조국과 인민을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는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시금 힘있게

파시하고 공화국을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로, 정치적 사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높은 열의 속에 회의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대의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하고있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인민의 총복답게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분투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백승의 가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우리의 혁명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짐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총정의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정보단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 평양시 경축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되신 격동적인 소식에 집합 온 나라 찬만민은 뒤흔어오는 감격과 경축의 환희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특출한 정치실력, 무비의 당력과 배짱, 고매한 인민적품모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상최대의 행운이고 영광이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특기할 대경사를 맞이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선군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의 가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경의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며 그이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평양시 경축대회가 10일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경축대회장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모은 10만여명의 각계층 군중들로 차고 넘쳐있었다.

대회장에 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서

저있었다.

대회장상공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위업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선군정치의 위대한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 <혁명적 사상공세를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가자!> 등의 구호판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조국,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동지따라 민방에 빛내 이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자!>, <강성국가>, <최후승리> 등의 구호들과 글발들, 조선로동당기, 공화국기가 광장 주변건물들에 드리워져있었다.

기발계양대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들이 나뭇기고있었다.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과학, 교육, 문학예술,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혁명적 사상공세를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가자!> 등의 구호판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조국, 김정일장군님의

내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일꾼들, 영웅들, 로력혁신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애국가의 주악으로 대회는 시작되었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가 경축보고를 하였다.

이어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연설한 평양역 초급직맹위원장 남춘빈은 전당,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온 겨레의 념원을 반영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신것을 축하드리며, 주체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근면초석을 마련한 중대한 력사적사변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명

령도의 첫 시기부터 우리 로동계급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인 선봉대, 용감한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불태우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김정은동지를 잘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주체혁명위업을 계속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로동계급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사상도 뜻도

운명도 함께 하는 선군혁명동지가 되어 그이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온 세계를 놀래우는 <조선속도>라는 새로운 시대를 창조해나감으로써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며 평양시를 주체조선의 수도,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더욱 융성하고 풍치수려한 도시로 꾸리고 일터마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새차게 울리게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3 번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 평양시경축대회 성대히 진행

### 1편에서 계속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연설한 사동구역 리현남새전문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정영숙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것은 원수님께서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그의 령도따라 백두의 대업을 끝까지 이어나갈 친만군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실천투쟁을 통하여 비범한 령도실력과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정을 지닌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에 온몸으로 매혹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을 따라 만년시련을 이겨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숭고한 뜻을 안고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해결을 위해 온갖 로고를 다 바쳐가고계신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전체 농업근로자들이 사회주의농촌체제를 50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알곡생산목표를 거이 완수할 맹세로 가슴 불태우고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굳게 믿고 받들며 쉼없이 결사옹위함대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선의 전초선으로 여기고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알곡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 선군시대의 참된 애국농민이 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과학농사혁명, 사회주의 경쟁열풍을 새창에 일으켜 집단



적혁신의 불길에 협동벌마다에 타번지게 하며 애국의 땀과 순결한 향기를 아낌없이 바쳐 조국방위에 만통년의 향기가 넘치는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연설한 국가과학원 소장 류성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온 나라 지식인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총정의를 마음속 담아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탁월한 정치가이실뿐아니라 과학의 거장으로서 우리 지식인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라고 강조하고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력적인 령도로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지위와 위력을 공고히 하시고 지식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새 역사를 펼쳐놓으시었다고 말하였다.

우리 지식인들을 당의 영원한 동행자,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아끼고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지식인들이

불타는 애국심을 지니고 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어나갈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전체 지식인들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인 과학전선과 혁명적 사상공세의 포성을 힘차게 울려가게 하는 사상문화전선에서 당의 유일적령도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충직하게, 가장 견결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지식인들은 당이 마련해준 과학 기술봉파의 날개를 활짝 펴고 과학적재능과 열정을 총폭발시켜 높은

과학기술성장과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지식인들은 혁명적사상공세의 앞장에서 사상적기수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정진과학기술인재화실현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애국의 한마음을 다 바쳐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연설한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 장광호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온 나라 청년학생들의 가슴가슴은 태양민족의 영광과

끝없는 환희로 하여 새창에 고동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선군청년전위들이 틀어쥐고나갈 전투적기치를 마련해주고 뜨거운 열과 정을 부어주시는 애국의 한마음을 다 바쳐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주제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과 맞추어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할것이다.

대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라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백두산대국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파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희세의 선군령장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천만리를 낫낫이 이어가자

## 경축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의 보고

동지들!

지금 온 나라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끝없는 격정과 환희로 인민들이 끓어넘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것은 우리 조국의 무궁번영과 주체혁명위업완성에서 특기할 의의를 가지는 정치적사건이며 민족의 대경사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나라의 존엄과 무진막강한 국력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국방위원회의 최고직책에 높이 모심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끝없는 활력에 넘쳐 줄기차게 전진하게 되었으며 위대한 김일성, 김정은조선의 만년대계가 굳건히 담보되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이 자리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열화같은 흥도의 마음을 담아 우리모두의 생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천만군민이 심장으로 받들어모시고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십니다.

일찍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존엄한 선군혁명의 길을 함께 헤쳐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2년간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

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전반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휘날리며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백두산대국의 힘이고 승리과 영광의 기치이십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100% 계승하며 유관관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모든 사업을 수행님께서 장군님식대로 해나가도록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결한 총정예의 력사가 결합없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중대한 역사적시기에 맞게 우리 당을 위력한 혁명의 참모부,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당의 유일적령도체제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역척같이 다지시였습니다.

당과 국가의 최고직책을 맡으신 때로부터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토록 거대한 변혁을 이룩하시어 민심을 완전히 틀어잡으시고 인민이 사랑하는 령도자, 세계적인 명인으로 만민의 존경과 칭송을 받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권위는 절대적이며 그 무엇으로도 허물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시도록 하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혼연일체의 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도록 하시어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억년 드높지 않는 신념의 기둥을 세워주시였습니다.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언제나 조국수호의 전초선에 계시며 빨찌산식강행군을 이어가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끝없는 전진시찰의 길에서 백두산대국의 자주적존엄과 백색의 기상은 만천하에 파시되었습니다.

정치는 우리에게 있다는 필승의 신심과 강인대담한 배짱을 지니시고 조국통일과 사회주의수호를 위한 투쟁을 확신성있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화가복으로 전환되고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권위와 존엄은 높이 떨쳐지고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출위인상을 더욱욱 심장깊이 절감하고있으며 원수님을 따라 나아가며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라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승리자의 높은 긍지와 밝은 앞날에 대한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장엄한 진군에 힘차게 뛰쳐나서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희세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장병들이 당의 혁명사상,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훈련을 실천의 분위기에서 제도화, 생활화하고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어 전군을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는 혁명의 지지점으로 준비시키시였습니다.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날 봉사자들을 쉬임없이 찾으시고 평범한 교육자, 로동자의 가정들과 철모르는 아이들이 뛰노는 탁아소와 유치원, 육아원과 애육원까지 들리시어 하늘 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은 천만군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사상도 령도도 덕망도 제일이신 희세의 천출위인이시며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출위인상을 더욱욱 심장깊이 절감하고있으며 원수님을 따라 나아가며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라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승리자의 높은 긍지와 밝은 앞날에 대한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장엄한 진군에 힘차게 뛰쳐나서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제를 철저히 세우며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일관단심 충직하게 받들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천만리를 낫낫이 이어갈것입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철석같은 신념을 지니고 불속에서도 변질을 모르고 억년 세월속에서도 변색을 모르는 순결한 망심과 의리로 원수님을 받들며 결사옹위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높이고 같이 지고 같이 우리의 정치적사상진지를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투사가 되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최단기간에 완벽하게 수행하며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더욱 새창에 일으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은 방대하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원수들의 책동은 날로 더욱 악랄해지고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더욱욱 심장깊이 절감하고있으며 원수님을 따라 나아가며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라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더욱욱 심장깊이 절감하고있으며 원수님을 따라 나아가며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라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더욱욱 심장깊이 절감하고있으며 원수님을 따라 나아가며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라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더욱욱 심장깊이 절감하고있으며 원수님을 따라 나아가며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라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더욱욱 심장깊이 절감하고있으며 원수님을 따라 나아가며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라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더욱욱 심장깊이 절감하고있으며 원수님을 따라 나아가며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라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더욱욱 심장깊이 절감하고있으며 원수님을 따라 나아가며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라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더욱욱 심장깊이 절감하고있으며 원수님을 따라 나아가며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라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더욱욱 심장깊이 절감하고있으며 원수님을 따라 나아가며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라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더욱욱 심장깊이 절감하고있으며 원수님을 따라 나아가며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라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더욱욱 심장깊이 절감하고있으며 원수님을 따라 나아가며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라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더욱욱 심장깊이 절감하고있으며 원수님을 따라 나아가며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라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더욱욱 심장깊이 절감하고있으며 원수님을 따라 나아가며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라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더욱욱 심장깊이 절감하고있으며 원수님을 따라 나아가며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라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더욱욱 심장깊이 절감하고있으며 원수님을 따라 나아가며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라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더욱욱 심장깊이 절감하고있으며 원수님을 따라 나아가며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라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더욱욱 심장깊이 절감하고있으며 원수님을 따라 나아가며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라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더욱욱 심장깊이 절감하고있으며 원수님을 따라 나아가며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라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더욱욱 심장깊이 절감하고있으며 원수님을 따라 나아가며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라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더욱욱 심장깊이 절감하고있으며 원수님을 따라 나아가며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라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더욱욱 심장깊이 절감하고있으며 원수님을 따라 나아가며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라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더욱욱 심장깊이 절감하고있으며 원수님을 따라 나아가며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라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더욱욱 심장깊이 절감하고있으며 원수님을 따라 나아가며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라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있습니다.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열렬히 축하하는

### 인민무력부 경축대회 진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된것을 열렬히 축하하는 소식을 접한 조국의 방선초소들에 크나큰 격정과 환희가 넘쳐나고있다.

조국청사에 특기할 민족적대경사를 맞이한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백두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높이 모시고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나갈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열렬히 축하하는 인민무력부경축대회가 10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인민무력부경축대회장에는 불세출의 선군명장들을 진두에 모시고 불멸의 권력으로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수호하고있는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정렬해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이 차나치는 대회장은 최고사령관동지의 총대동지, 열렬의 전우가 되어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백두산혁명장군의 위용을 펼쳐갈 전체 대회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대회장 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들과 《결사옹위》, 《열심단결》이라는 글발을 드리운 대형기둥들이 떠있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시다》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 향양에는 조선인민군 특공,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 군인들이 세워져있으며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인민무력부 일군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는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대회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전당, 전군, 전민의 일치한 의사와 범원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었다.

오늘의 민족적경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신뢰와 호모심의 분출이며 당의 두리에 굳게 묻혀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하려는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만천하에 파시던 역사적 사변이라고 강조하였다.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변함없이 높이 모심으로 백두에서 개척된 선군혁명의 명맥이 백두산혈통으로 더욱 굳건해지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앞길에는 보다 휘황찬란한 승리의 대통로가 열리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수령영생위업의 새로운 장을 펼쳐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도록 하시라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빛내어나가시도록 절세위인들의 성스러운 혁명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게 하여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권력강화는 국사중의 국사이며 강력한 총대우에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이 있다는 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인민군대를 천하무적의 혁명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노력을 바치셨다고 말하였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굳건히 하는 총적임무로 제시하시고 전군선진일군대회를 비롯한 여러 회합들에서 사상강국건설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시었다고 강조하였다.

전군에 혁명전통교양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주시고 조선인민군 편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진지침사령군을 통하여 세 세대 장병들이 함양발전의 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고 대외 투쟁해나가도록

위협천만한 서남전선의 최대열점 지역과 오성산을 비롯한 조국의 조소들과 혼련장들을 찾고찾으시며 백두산혼련열점으로 전투력강화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시었다고 말하였다.

우리 인민군대 무적의 권력으로 무분별하게 날뛰던 적들의 기를 완전히 꺾어놓은것은 천만장병들의 심장마다에 백두의 담력과 배짱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또 하나의 장쾌한 승리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병사들을 사랑의 한복에 안아 내세워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어 보기에 드문 콩사태와 물고기대 등이 마련되고 외전 점초소들이 천도 개척되는 최후의 현실이 펼쳐졌으며 전투무수행중에 희생된 해군용사들이 붉은 당기에 싸여 영생의 언덕에 오르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주조전투의 전령에 우리 인민군대를 세우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주조전투의 전령에 우리 인민군대를 세우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에 의하여 오늘 우리 공화국이 경제와 문화,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전례없는 대박을 일으켜나가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사상과 명도력, 군사적예지와 담력, 혁명적의리와 인덕에 있어서 천하제일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신 혁명무력의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우리 공화국의 앞길은 끝없이 휘황 찬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조국통일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오늘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김정은혁명장군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하자면 모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김정은동지를 잘 받들고 그를 따르고 혁명의 천마를 변함없이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백두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목숨으로 사수함으로써 수령결사옹위라는 이름은 우리 혁명무력의 자랑찬 역사를 김정은결사옹위로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백두밀림에 차넘치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콩농사, 수산, 축산의 3대영광을 세차게 일으켜 군인생활을 결정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역천만년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는 함양발전정신으로 싸움준비완성에 총력을 집중하여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전진전술과 영웅적투쟁정신, 완벽한 선진전술과 백발백중의 사격술, 무쇠같은 체력을 소유한 진자배기싸움꾼, 백두산로망으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오중중7면대정치영생위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려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품모를 완전하게 갖춘 정치사상군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데 대하여 말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정신을 높이 받들고 사상의 포문을 일제히 열고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열정, 전투적기백으로 전군이 들끓게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적들의 비열한 심리모략전과 부르조이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예리한 계급적원칙과 함일유격대식문화로 짓부시기 위한 공격전을 두세개 벌려 백두산혁명장군의 총대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모든 중대들 항일의 7면대 4중대와 같이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준비된 최정예전투대로, 친혈육의 정이 차나치는 정은 교향적으로 만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선군혁명의 천하제일본인 군민대단결을 백두에서 강화하며 군민협동작전의 주동이 되어 건설에서 대변 역할을 열어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조국방 방방포복에서 사회주의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지휘성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불타는 총정교 결한 혁명적원칙성, 혁신적인안목과 완성한 사업의욕, 군인들에 대한 헌신적부무정신을 지니고 정치사업도 싸움준비도 부대편리도 함일유격대식으로 해나가는 참된 지휘성원이 되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장병들은 강력한 총대우에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부강번영도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전투력강화에 최대의 박차를 가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명만 내리시던 백두의 폭풍과 같이, 백두의 번개와 같이 단숨에 달려나가 침략의 본거지들을 무지비하게 죽창처럼벼어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최세의 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백두산혁명장군의 위업은 날로 강화되고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은 현실로 펼쳐질것이며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과 강성국가건설을 총대로 믿음직하게 담당해나갈 철의 의지가 담긴 구호들을 우렁차게 외쳤다.

대회에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자!》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대회가 끝난 다음 전체 참가자들은 흥겨운 경축무도회를 펼쳤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 평양시내 여러곳 참관

관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0일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대표단 경모의 정표시, 로씨야내무성 내무군야카페미야협주단 꽃바구니 진정

관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9일 로씨야내무성 내무군야카페미야협주단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조로천선관계발전과

관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9일 로씨야내무성 내무군야카페미야협주단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조로천선관계발전과

관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9일 로씨야내무성 내무군야카페미야협주단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조로천선관계발전과

관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9일 로씨야내무성 내무군야카페미야협주단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조로천선관계발전과

관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9일 로씨야내무성 내무군야카페미야협주단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조로천선관계발전과

관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9일 로씨야내무성 내무군야카페미야협주단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조로천선관계발전과

관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9일 로씨야내무성 내무군야카페미야협주단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조로천선관계발전과

관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9일 로씨야내무성 내무군야카페미야협주단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조로천선관계발전과

## 선군조선의 양양한 전진도를 펼친 민족사적대경사

### 경축모임 진행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돐에 즈음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이 9일 당장건기념탑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직맹원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참가하였다. 현상주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쓰여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2돐에 즈음한 청년학생들의 경축모임이 10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서는 전총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경축모임에 이 평양철길대 칠칠칠 김경철, 대성남세진로동동맹장 동맹장 김옥성,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리영진, 선교구역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정정성이 연설하였다.

김정은동지는 천만군민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치를 높이 들고 필승의 신념과 락판을 넘쳐 선군조선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가기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이번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내

내 조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만방에 빛내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는데서 특기할 정치적 사변이며 민족사적대경사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2돐에 즈음한 청년학생들의 경축모임이 10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참관



#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대양절에 즈음하여 중앙미술전시회 개막

## 국가산업미술전시회 개막



태양절경축 중앙미술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전시회장은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었다.

《깃발진 조선에 동은 트리라》, 유화 《1939년의 봄》, 조선회화 《10월의 환희》, 아크릴화 《새 조선의 탄생》은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높이 과감한 우리 민족의 수난의 역사에 영원한 충지부를 찍으시고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적공로를 잘 형상화했다.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민족 대통운의 날과 더불어 우리 인민이 받아안은 수령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증시높이 새겨주는 선전화 《민민의 경사로운 태양절 만세!》, 《세계인민의 위대한 태양》 등도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인류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백두의 혁명무력은 원수님 영도만 받는다!》, 《우리의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백두의 혈통을 잇듯이 이어갈 천만군민의 철석의 의지가 반영되어있다.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지도하여 주신 600여점의 도안작품들과 산업미술도안들이 출품되었다. 또한 만수대창작사와 조선산업미술창작사, 각 도산업미술창작사, 성, 중앙기관 산업미술창작단원들, 공장, 기업소, 대학의 창작가, 교원, 학생들, 산업미술애호가들이 창작한 800여점의 도안들과 제품, 모형들이 출품되었다. 개막식이 10일 국가산업미술전시회에서 진행되었다.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지도하여 주신 600여점의 도안작품들과 산업미술도안들이 출품되었다. 또한 만수대창작사와 조선산업미술창작사, 각 도산업미술창작사, 성, 중앙기관 산업미술창작단원들, 공장, 기업소, 대학의 창작가, 교원, 학생들, 산업미술애호가들이 창작한 800여점의 도안들과 제품, 모형들이 출품되었다. 개막식이 10일 국가산업미술전시회에서 진행되었다.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지도하여 주신 600여점의 도안작품들과 산업미술도안들이 출품되었다. 또한 만수대창작사와 조선산업미술창작사, 각 도산업미술창작사, 성, 중앙기관 산업미술창작단원들, 공장, 기업소, 대학의 창작가, 교원, 학생들, 산업미술애호가들이 창작한 800여점의 도안들과 제품, 모형들이 출품되었다. 개막식이 10일 국가산업미술전시회에서 진행되었다.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지도하여 주신 600여점의 도안작품들과 산업미술도안들이 출품되었다. 또한 만수대창작사와 조선산업미술창작사, 각 도산업미술창작사, 성, 중앙기관 산업미술창작단원들, 공장, 기업소, 대학의 창작가, 교원, 학생들, 산업미술애호가들이 창작한 800여점의 도안들과 제품, 모형들이 출품되었다. 개막식이 10일 국가산업미술전시회에서 진행되었다.

# 백두의 혁명정신, 필승의 락판으로 량강땅이 들끓는다

모란봉악단 해산시에서 열린 일련일성황리에 공연

량강도에술극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란봉악단의 공연이 시간이 흐름수록 관람열기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삼천연군과 대흥단에서 장엄한 음악포성을 울려간 모란봉악단 예술인들의 공연소식을 들으며 그들이 어서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온 해산시 인민들이어서 그 관람열기는 참으로 대단하다.

이렇게 절절히 토로하는 해산시 인민들의 모습과 더불어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음악세계가 얼마나 신비롭고 위대하며 그이의 따뜻한 손길과 세심한 지도가 어떤 모란봉악단의 공연이 얼마나 강렬한 힘을 폭발하고있는가를 매일, 매 시각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고온 모란봉악단이 황홀한 예술의 세계를 펼쳐며 해산시 인민들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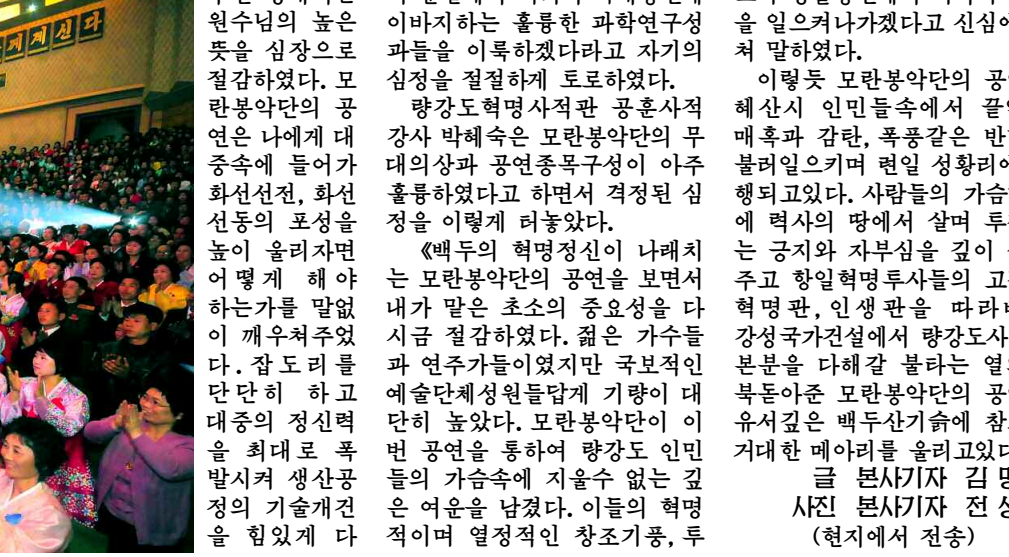
《공산당 만수대창작사》, 《백두의 혁명정신》, 《필승의 락판》, 《량강땅이 들끓는다》, 《모란봉악단의 영광》, 《원수님의 태양절 만세!》, 《세계인민의 위대한 태양》 등도 있다.

《공산당 만수대창작사》, 《백두의 혁명정신》, 《필승의 락판》, 《량강땅이 들끓는다》, 《모란봉악단의 영광》, 《원수님의 태양절 만세!》, 《세계인민의 위대한 태양》 등도 있다.

《공산당 만수대창작사》, 《백두의 혁명정신》, 《필승의 락판》, 《량강땅이 들끓는다》, 《모란봉악단의 영광》, 《원수님의 태양절 만세!》, 《세계인민의 위대한 태양》 등도 있다.

《공산당 만수대창작사》, 《백두의 혁명정신》, 《필승의 락판》, 《량강땅이 들끓는다》, 《모란봉악단의 영광》, 《원수님의 태양절 만세!》, 《세계인민의 위대한 태양》 등도 있다.

《공산당 만수대창작사》, 《백두의 혁명정신》, 《필승의 락판》, 《량강땅이 들끓는다》, 《모란봉악단의 영광》, 《원수님의 태양절 만세!》, 《세계인민의 위대한 태양》 등도 있다.



###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대표단 도착

리거식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이 1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대표단 도착

제16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할 하리 운모로 드러자드 판팡 및 지적경제상고문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대표단이 1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 캐나다조선인연합회대표단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 김수해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캐나다조선인연합회대표단이 1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 여러 나라와 지역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 앙드레 로해절에 갈란드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파 드미트리 코스젠코위원장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 연구협회대표단, 와집 꾸지민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벨라루지 2.16명칭 주체사상연구위원회대표단이 10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할 여러 나라 예술인들 도착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할 중국예술단(동방가무단, 산동성교예단), 로씨야 국가교예회사교예단, 몽골전국협주단, 말레이시아 마이 하모니카 월드중주단, 벨라루시국립 무용단, 우크라이나 키예브루드극장무용단, 오스트리아 원목관중주단, 인도네시아 드위키음악단, 타이요술가일행, 도이쾰란드 크로이젠 콘서트협회 첼로독주자, 스위스대중가요가수, 이탈리아가극가수, 푸마기타독주자가 1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 중국을 방문하였던 조선로동당 경제부분 일군참관단 귀국

중국을 방문하였던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리호선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경제부분 일군참관단이 10일 귀국하였다.

### 싱가포르, 까라르를 방문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보위원회대표단 귀국

싱가포르와 까라르를 방문하였던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보위원회대표단이 10일 철차로 귀국하였다.

### 중국을 방문하였던 조선로동당 경제부분 일군참관단 귀국

중국을 방문하였던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리호선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경제부분 일군참관단이 10일 귀국하였다.

###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할 여러 나라 예술인들 도착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할 중국예술단(동방가무단, 산동성교예단), 로씨야 국가교예회사교예단, 몽골전국협주단, 말레이시아 마이 하모니카 월드중주단, 벨라루시국립 무용단, 우크라이나 키예브루드극장무용단, 오스트리아 원목관중주단, 인도네시아 드위키음악단, 타이요술가일행, 도이쾰란드 크로이젠 콘서트협회 첼로독주자, 스위스대중가요가수, 이탈리아가극가수, 푸마기타독주자가 1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 주체의 영원한 태양을 따르는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 행성에 굽이친다

## 만민을 매혹시킨 희세의 정치원으로

희세의 정치원로서 높은 국제적 위를 지니시고 만민의 신뢰를 받으신 우리 수령님의 혁명활동 전과정에 관동 되어있는것은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하며 진실하고 헌신적인 사랑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일성동지는 한없이 고결한 품모를 지니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다.》

엔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래 동안 혁명을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과 사귀었지만 원수들을 내놓고는 그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무서우지도 않았으며 보려는 마음을 가져본적이 없었다고, 그것은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이 동지이고 벗이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생애를 혁명적동지, 인간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로 수놓으셨다. 세상에서 동지와 벗이 제일 많은분이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한없이 넓고 웅심깊은 인정미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여러 나라 당, 국가수반들, 정계, 사회계, 학계의 수많은 저명한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으셨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인정미와 숭고한 도덕의 빛, 넓은 도량과 아량있는 포용력에 매혹되어 인성의 방랑정신을 한 사람은 없었으며 그의 벗이 되고 제자가 된 사람은 얼마만큼.

보조부장인 김오소도 말하듯 군함보장, 대통령경력을 가진 판북있는 정치인이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군의 침략적인 공세작전들이 물거품으로 되는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한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강철의 평양으로 우러러 흠모하였다.

그가 수령님을 처음으로 뵈은것은 주제 70(1981)년 7월이였다.

수령님께서는 그의 두손을 따뜻이 잡으시고 오랜 친구를 만나는 심정이라고 정담아 말씀하시면서 그의 공로도 평가

해주시고 그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답을 주시었다.

주제 71(1982)년 4월에 고메스가 도다시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수령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고 오찬도 함께 하시며 이전 구면친구로 되었는데 우리 나라에 자주 오라고, 인민을 위하여, 유령의 자주화를 위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주화를 위하여 함께 싸워나가라고 말씀하시며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살아있는 위대한 수령님을 뵈고 함께 한생애 살아온 무뚝뚝한 군인출신인 고메스의 심정에 지퍼진 매혹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올랐다. 수령님의 신비한 친화력에 눈앞이 캄캄한 고메스는 《김일성주석은 인덕으로 세계를 움직이시는 위인이시이다.》라고 진정을 고백하였다. 그가 주제 사상신봉자로, 조선통일지적자로, 반바탕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

어제 그분이라. 버제스나 피오레가 판독하는 정의의 문필가로 세계인사의 한해치에 뚜렷한 자국을 남겼고, 두르르가 수십년간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업에 정력을 바친것도, 수많은 외국의 벗들이 수령님의 존함을 친근하게 부르며 그리움의 정을 터치고있고있고 폭과 깊이를 헤아릴수 없는 아버지수령님의 대해같은 인덕과 포용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기신 대외활동 일화들 가운데는 수령님의 숭고한 덕담을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주요명절때마다 우리 나라에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바쁘신 시간을 내곤 하시었다. 만나주실 때에는 매 사람앞으로 다가가서이나 다정히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시었고 담화도 하시었다. 한 일꾼이 수령님께서 한자리에 서계시면서 손님들로부터 인사를 받으시였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렸다. 수령님께서는 손님들이 우리를 찾아왔는데 주인이 우리가 그들을 만

나서 인사를 해야지 그들이 와서 인사를 하라는 식으로 해서야 되겠는가고 나무람하시었다.

우리 수령님은 이런분이시었다. 자신의 로고보다 다른 사람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시며 바치신 위대한 헌신의 날과 달이 있어 수령님의 대외활동력은 인류의교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위인전설의 년대기들로 빛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은 우주와도 같은 품으로 세계를 안으시고 태양의 빛과도 같은 따뜻한 정으로 인류를 품어주시는 희세의 정치원로서이다.

사상과 정견이 다른 사람들도 누구든지 우리 수령님을 한번 만나보시면 그 고결한 인품에 매혹되어 끝없이 흠모하고 존경하였다.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뵈고 나서 《김일성주석은 미국의 진국과 우대명을 대표했던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3대 대통령을 다 하라고 하며 당당히 맞섰다. 너무도 고고한 그의 기세에 위압된 부인의 사나이들은 비실비실 도망치고말았다.》

가네마루는 생의 마지막까지 《김일성주석과 한걸을 걸었다.》고 한 자기의 맹세를 지켰다. 외교관계도 없고 적대국인 미국과 일본의 교역관계들까지 위대한 수령님앞에 머리를 수그리고 고개를 중심으로 존경해하지 않는 사실은 희세의 정치원로서인 우리 수령님의 특출한 위인상을 다시금 절감하게 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한번 사인 사람은 실사 하늘이 뒤집힌다고 외를 번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위해주시었다.

정녕 수천수만의 심장을 뚫어주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과 의리의 세계, 국적과 민족을 초월하여 시대의 위인전설로 전제되는 사랑의 서사는 한없는 그로움과 열렬한 호모의 송가가 되어 우리의 행성에 오늘도 울려퍼지고있다.

본사기자 배규희

음교 정말 눈물을 흘렸는가고 물었는데 그것은 사실이다. 나는 김일성주석각각을 만나보고 그분의 인간성에 끌리어는 물음을 흘렸는것을 숨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실으로 존경하는 위인에게 매혹된것은 수치가 아니기때문이다. 내 비록 말의 말문을 살피고있는 정치가이지만 김일성주석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이것이 정치가로서의 나의 마지막사명이다.》라고 혼연히 말했다. 그후 우리 수령님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것을 두고 일본사람들은 《김가네마루》라고 불렀다.

어느날 그의 사무실에 복원한 사나이들이 뛰어들었다. 그들은 가네마루의 가슴에 총을 들이대고 3당공동선언을 무효화하고 평양을 찬양하는 활동을 일체 중지할것을 강박하였다. 이때 가네마루는 나는 신의를 묵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어떤 놈의 총이나 칼에 맞는것은 내도 김일성주석과 맺은 신의만은 절대로 버릴수 없다. 그러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당당히 맞섰다. 너무도 고고한 그의 기세에 위압된 부인의 사나이들은 비실비실 도망치고말았다.

가네마루는 생의 마지막까지 《김일성주석과 한걸을 걸었다.》고 한 자기의 맹세를 지켰다. 외교관계도 없고 적대국인 미국과 일본의 교역관계들까지 위대한 수령님앞에 머리를 수그리고 고개를 중심으로 존경해하지 않는 사실은 희세의 정치원로서인 우리 수령님의 특출한 위인상을 다시금 절감하게 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한번 사인 사람은 실사 하늘이 뒤집힌다고 외를 번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위해주시었다.

정녕 수천수만의 심장을 뚫어주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과 의리의 세계, 국적과 민족을 초월하여 시대의 위인전설로 전제되는 사랑의 서사는 한없는 그로움과 열렬한 호모의 송가가 되어 우리의 행성에 오늘도 울려퍼지고있다.

본사기자 배규희

## 자주시대에 활짝 핀 위인칭송의 꽃

◇ 얼마전 태양의 꽃 김일성화애 제8차 중국(상아)국제꽃박람회 특별상이 수여되었다. 김일성화가 국제꽃재계의 학회에 정식 학명으로 등록된것은 1982년 4월이다. 그때로부터 국제화초계와 세계원예박람회장에서 불멸의 꽃 김일성화애 최고상인 금상과 상장, 최우수전시품상과 특별전시상 등을 수여하였다.

오늘 태양의 꽃 김일성화는 세계원예학회가 공인하는 명화로, 인류공동의 재보로 빛을 뿌리며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인칭송의 꽃이다.

《김일성화가 세상사람들이 그토록 관심하는 명화로 되고있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보면 불수록 고상한 정서와 유다른 애락을 자아내는 꽃의 특이한 아름다움때문인가. 아니다. 그것은 이 꽃이 20세기 인류가 낳은 절세의 위인의 존함을 모시였기때문이다.》

◇ 김일성화는 자주시대 인류의 마음속에 피어난 위인칭송의 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김일성화는 주체의 해발로 세계인민들이 나아가 길을 밝혀주시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을 상징하는 태양의 꽃이며 자주시대 인류의 마음속에 피어난 위인칭송의 꽃입니다.》

지구상에는 수천수만가지의 꽃들이 피고있다. 허나 기나긴 세계화초사의 그 어느 갈래에도 김일성화처럼 만민이 공인하는 절세위인의 존함을 모신 꽃, 숭고한 뜻을 담고있는 꽃은 없다.

— 존경하는 김일성수상님, 수상님의 사상은 위대하여 세계를 움직이기에 수상님은 온 세계를 가지고계시는것이나 같습니다.

수상님이시야말로 자주시대를 밝히는 태양이며 만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고 진귀한 꽃에 수상님의 존함을 모셔 김일성화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수십년간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대통령이 한이 많은 우리 수령님의 위인상에 완전히 매혹된 정치지도자의 심장의 고백이었고 탁월한 사상가 위대한 품모와 업적으로 20세기를 적당사신 희세의 위인을 우러러 러친 시대의 웨침이었다.

그렇다. 김일성화는 단순히 자연의 꽃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의 흐름을 자주의 길로 이끄는 위인대중이 지배와 굴종에서 벗어나 자기 나라 혁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새 역사를 창조하고 빛내신 우리 수령님께 영광과 미례를 의탁한 만민의 소망과 이상이 실려있는 위인칭송의 꽃이다.

◇ 김일성화는 인류의 열렬한 위인호모심에 떠날려 온 누리에 만발하고있다.

열대의 섬나라에서 피어나 우리 나라에 깊이 뿌리내린 세계적인 명화 김일성화는 주체의 열렬한 태양을 따르는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절절한 그리움에 일러 세겨방방곡곡에 굽이쳐지고있다.

여러 나라와 지역에 김일성화는실이 생겨나고 다양한 형태의 보급조직들과 후원회들이 결성되고있다. 김일성화를 아프리카에 피우고있다.

다양한 정성담이 키운 기네의 벗들이 여기는 태양의 꽃이 열린 감동적인 위인칭송의 서사시의 한도락이 지나지 않는다. 절세의 위인을 흠모하여 세계가 태양의 꽃, 위인칭송의 꽃을 피우려는 마음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수억만의 심장이 피우고 세계가 가꾸는 태양의 꽃과 더불어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한다.

이 하나로 합쳐져 주체사상함을 하늘높이 떠날려올랐다.

우리가 밝게 비치는 주체의 빛발이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길을 걸었던가. 반체제배양투쟁의 세계사적모범을 창조하신 우리 수령님을 만나보고 혁명의 진리를 체득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더군. 주체사상을 받아안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각처에서는 자주적인 삶을 노래하는 창조적의 마음속이 높이 울려다녔다. 가이아나의 대통령이었던 번합이 운명

의 시각을 앞두고 주체의 재도는 인류가 대행진해가는 길이다. 이것을 어기면 차레질은 축출된다. 재도를 어기지 말고 고한 관공란 당부는 지금도 시대의 해안으로 울리고있다.

주체사상의 위대한 건인력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 힘있게 피지고있다. 20세기에 세계적판도에서 일어났던 주체사상지, 신봉의 열풍은 21세기에 우리 행성의 황금으로 이어질것이다. 평양길에 다름아닌 인류가 지향하는 사회주의의 길, 자주적인 세계에로의 길이다.

본사기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회고모임 중국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회고모임이 태양절에 즈음하여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재중국일혁명투사, 중국항일혁명투사, 중국항일혁명투사명령연고자가족들 그리고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인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이어 그들은 우리 나라 영화를 감상하였다.

중국항일혁명투사 장승화의 딸 장금복은 위대한 김일성동지회고모임과 김정일동지회고모임이 자기 가족에게 돌려주신 뜨거운 사랑에 대해 감회깊이 회고하였다. 그는 오늘 영화를 통하여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그대로서인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에 조인한이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가를 더 잘 알게 되었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이 더욱 부강번영할것을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언급하였다.

재중국항일혁명투사 리재덕의 아들 우명은 자기 가족은 김일성주석에 대한 끝없는 흠모심을 깊이 간직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태양절이 마는 말에는 김일성주석께서는 민족의 태양으로 탄생하시었다는 뜻깊은 의미가 담겨져있다. 김일성주석은 조선의 수천년역사에서 처음으로 인민이 주인된 나라를 건설하시고 인민이 후손만대 번영할 만년대를 마련하신 건국의 어머니,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계승발전시키시어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 당과 군대, 인민을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령도하신다.

중국항일혁명투사명령연고자 체제영의 손녀 위대한 상원선생의 아들 산수위는 위대한 수령님과 전세대들사이의 연고로 감회깊이 회고하고 김일성주석을 떠나오늘의 조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조국조선의 대가 변함없이 이어지고 더욱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이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 태양절에 즈음한 사진 및 도전전시회장을 돌아보는 외국들의 벗들, 그들의 얼굴마다에 자주의 기치밑에 시대와 역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끓어올랐다.

뜻깊은 태양절을 인 류공동체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맞이하는 벗들의 모습은 5대륙 어디서나 보인다.

본사기자

태양절에 즈음한 사진 및 도전전시회장을 돌아보는 외국들의 벗들, 그들의 얼굴마다에 자주의 기치밑에 시대와 역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끓어올랐다.

뜻깊은 태양절을 인 류공동체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맞이하는 벗들의 모습은 5대륙 어디서나 보인다.

본사기자



태양절에 즈음한 사진 및 도전전시회장을 돌아보는 외국들의 벗들, 그들의 얼굴마다에 자주의 기치밑에 시대와 역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끓어올랐다.

뜻깊은 태양절을 인 류공동체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맞이하는 벗들의 모습은 5대륙 어디서나 보인다.

본사기자

## 《주체의 영원한 태양》 기네단체들 불레핀특간호 발행

태양절경축 기네준비위원회와 주체사상연구 기네준비위원회가 3월 19일 공동으로 불레핀 특간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2돌에 즈음하여》를 발행하였다.

불레핀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진보적인류로부터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칭송받으셨다.

그이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 태양절에 즈음한 사진 및 도전전시회장을 돌아보는 외국들의 벗들, 그들의 얼굴마다에 자주의 기치밑에 시대와 역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끓어올랐다.

뜻깊은 태양절을 인 류공동체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맞이하는 벗들의 모습은 5대륙 어디서나 보인다.

본사기자

태양절에 즈음한 사진 및 도전전시회장을 돌아보는 외국들의 벗들, 그들의 얼굴마다에 자주의 기치밑에 시대와 역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끓어올랐다.

뜻깊은 태양절을 인 류공동체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맞이하는 벗들의 모습은 5대륙 어디서나 보인다.

본사기자

## 평양길

우로 감동있는 들을수 없는 사연들이 깃들여있다. 돌에 글이 가면 심장에 굽이 간다고 하면서 생명의 위엄을 무릅쓰고 안대산줄기에 묻혀있는 희귀한 대리석을 소중히 운반하여 주체사상함에 기증한 배우의 인사들, 만지나 귀걸이와 같은 고급장식품을 만드는데만 쓰이는 진귀한 옥돌판석 30여장을 구해다 정성껏 다듬어 보내여온 파키스탄의 주체사상신봉자들, 제일 좋은 대리석에 김일성화를 정성껏 새겨보낸 인도네시아의 기차...

진정 태양과 대를 넘어 평양에 온 고급장식품들은 세계사상사에 최고봉을 이루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인류에게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호모심, 주체사상을 끝까지 따르며 그 길에서 생을 빛내려는 그들의 굳은 각오와 의지가 비껴있다. 그 마음과 마음들

본사기자

## 도발자들은 제가 지른 불에 라죽고말것이다

적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이 날로 우세해지고있는 지금 최상위 군사과학기술, 최첨단무장장비로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튼튼히 담보하여야 한다.

남조선군부장대들이 이처럼 제멋대로 날치기는것은 세상물정을 모르는자들의 허세이다.

대결과 협정에 한강하여 합부대 협정은 미제와 피호전쟁들에게 무적침공의 강권인 우리 혁명투력의 가장 위력한 미사일임을 단단히 보여줄 수 밖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조선인민군 군관 유병수

## 총련중앙기관강탈책동은 국가주권에 대한 악랄한 침해행위

여러 나라 단체 성명서

로씨야, 벨라루시단체가 일본의 총련관악책동을 규탄하여 3월 31일과 4월 1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제일조선인들을 반대하여 감행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총련중앙회관(조선회관)강탈책동을 규탄한다.

이것은 일본의 힘 집권층이 역사문제에 대해 완전히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다시금 보여주고있다.

일본의 부분별한 정치는 지난 세기에 일본을 완전히 망하게 하였으며 동북아시아와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강요하였다.

미국이 일본의 상전으로서 그들을 배후조종하고있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총련과 제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책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김일성김정일명칭 전권벨라루시 조선인민의 친우협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당국은 총련에 대한 탄압책동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최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 총련은 제일조선인들의 합법적권리를 옹호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이다.

우리는 일본당국의 배후조종 밑에 강행된 총련중앙회관강탈책동에 대한 적대적정세에 걸걸기여하여달라고는 일본당국의 책동과 관련되어있다.

일본당국의 총련관악책동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일본인민 그리고 전세계인민들에 대한 도전이다.

도대체 총련에 대한 탄압행위가 누구에게 필요하단 말인가. 우리는 일본당국자들이 총련관악책동을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나이지리아, 벨라루시단체가 1일과 2일 일본의 총련관악책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나이지리아주체사상연구 전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3월 24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총련중앙회관(조선회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총련과 제일조선인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탄압책동이 극히 위대한 단계를 넘어가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최상의 군사기술로 자주권을 철벽으로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인 로켓탄사수련을 놓고 그 무슨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고 고대하던 남조선호전쟁들이 란도미사일발사시합이라는 것을 벌인것은 우리로 하여금 치자는 격문을 금할수 없게 하였다.

피뢰들이 이번에도 란도미씨일을 시험발사하는 추태를 부린것은 명백하다. 구겨박힌 저들의 체면을 세우려는 목적도 있지만 보다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북반반계개선의 분위기를 파괴하

며 북침전쟁공격준비에 더욱 박자를 가하는것이다.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위협》을 구실로 란도미씨일계발사동예를 울려 우리 공화국을 한사코 무력으로 해쳐보자는것이 바로 남조선호전쟁들의 흉악한 속심이다. 피뢰들은 이번 시험발사동예를 모제의 북침전쟁전략에 적극 추종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저들의 호전적정세를 날날이 드러내놓았다.

피뢰들이 그들의 목걸이는 남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이 다 된것처럼

우리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의 목걸이는 남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이 다 된것처럼

우리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의 목걸이는 남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이 다 된것처럼

우리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의 목걸이는 남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이 다 된것처럼

조선중앙통신

## 북마당질이 무섭거는 까불대지 말라

외세의 물납은 기술이 없어도 조립해놓은 그따위를 가지고 백두산혁명강군과 과연 맞서볼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미꾸라지처럼 수달같이 우쭐해있다고 하나 정말 가소롭지 않다.

우리는 북마당질자들의 최후결산을 위해 모든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왔다. 우리의 강위력한 전략로켓무력은 그 일부인 것이다. 사실 우리는 애당초 전시작전준비태도는 미국의 한갓 총알발에 불과한 피뢰들이라는 말대로 의외로도 되지 않았고, 그들 눈들이 움푹하기만 하면 백두산번개처럼 불이 번쳐 나게 무자비한

우리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의 목걸이는 남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이 다 된것처럼

우리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의 목걸이는 남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이 다 된것처럼

우리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의 목걸이는 남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이 다 된것처럼

우리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의 목걸이는 남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이 다 된것처럼

우리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의 목걸이는 남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이 다 된것처럼

조선중앙통신

## 북마당질이 무섭거는 까불대지 말라

우리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의 목걸이는 남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이 다 된것처럼

우리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의 목걸이는 남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이 다 된것처럼

우리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의 목걸이는 남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이 다 된것처럼

우리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의 목걸이는 남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이 다 된것처럼

우리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의 목걸이는 남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이 다 된것처럼

우리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의 목걸이는 남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이 다 된것처럼

우리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의 목걸이는 남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이 다 된것처럼

조선중앙통신

## 북마당질이 무섭거는 까불대지 말라

우리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의 목걸이는 남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이 다 된것처럼

우리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의 목걸이는 남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이 다 된것처럼

우리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의 목걸이는 남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이 다 된것처럼

우리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의 목걸이는 남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이 다 된것처럼

우리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의 목걸이는 남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이 다 된것처럼

우리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의 목걸이는 남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이 다 된것처럼

우리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의 목걸이는 남의 미사일기술이 그들이 다 된것처럼

조선중앙통신